

한국 디자인산업 이끄는 선봉장: 디자인전문회사

1992

디자인진흥원사

-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제도 실시
1호 등록 212디자인(은병수)
(디자인계 의견을 반영
1999년 신고제로 변경)
제1차 산업디자인발전5개년
계획 발표(1993-1997)

한국 디자인사

- 기아자동차 첫 고유 모델,
세피아 출시
- 산업디자인 포장진흥
민관협의회 발족
- 212디자인 디자인 수출
(모토로라사)

한국 사회사

- 삼성전자 64M DRAM 세계 최초 개발
- 대한민국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
-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선경)
- 하이텔, 천리안 서비스 개시
- 오토캐드 프로그램 보급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1947년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가 저물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바뀌면서 국내외 시장이 완전 개방 체제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로 예외는 아니어서 1990년대 이후 국가와 기업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정부 지원을 통한 발전을 넘어 기업 자체 역량의 강화가 중요해졌다. 늘어가는 산업디자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필요성도 점차 증대되었다.

1992년 산업자원부와 KIDP가 시행한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제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에 양질의 산업디자인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였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고 전문인력을 보유한 회사를 인증해 주는 제도였다. 국내 첫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주인공은 212디자인이었다. 이후 1994년에는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회사의 수가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 그해 29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 1997년에는 신고 요건을 좀 더 완화해, 자본금 5,000만 원 이상, 전문 인력 3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준에는 등록을 위한 전문 인력 요건이 KIDP에 등록된 디자이너에 국한되었지만, 이 요건 또한 완화했다. 이렇게 신고 요건을 완화한 이후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1997년 연말까지 100개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등록 제도는 과거와 최신 흐름을 조화시켜 산업디자인 수요에 부응하고, 지적 가치화 시대에 산업의 첨병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문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한국 디자인의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고, 등록 기준도 시대에 맞추어 변화해 매출액 기준이 없어졌고, 전문 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신청 방법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화했다.³⁹ 2018년부터는 정부의 규제 혁신 방침에 따라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제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 디자인 등 7개 분야로 운영한다.

KIDP는 이들 업체의 활동 및 성과 등을 심사해 매년 20개사 내외의 업체를 우수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 2년간 그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선정된 업체는 KIDP가 수행하는 각종 디자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를 받으며, 해외 시장 확대나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